

史實과 前提 : 발해 고분 연구의 경우*

宋 基 豪

1. 두 가지 잘못된 접근
2. 石墓와 土壙墓의 전통
3. 六頂山 古墳群의 성격
4. 맺 음 말

1. 두 가지 잘못된 접근

연구자가 前提로 삼는 事實이 역사 연구에서 훌륭한 출발점이 되는 순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때로는 잘못된 전제가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역사적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 발해사의 연구에서도 그러한 역기능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히 발해 문화를 논할 때에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한다.

발해 문화의 원류를 규명하고자 한 기왕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경향성을 보인다. 하나는 靺鞨文化는 안중에 두지 않고 오직 高句麗 연장선상에서 渤海文化를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靺鞨과 渤海를 일체화시키면서 高句麗를 이들로부터 떼어내려 하는 것이다. 두 가지 태도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든지간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당연시하면서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고 그 결과 처음부터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스스로 배제시키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연구 태도의 예를 들어보겠다. 북한의 朱榮憲 연구를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으니, 그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측면만 일방적으로 강

* 이 글은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주최 제1회 국제학술회의(2000. 2. 10.)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원래 『汕靺史學』 3집(1998)에 게재한 「六頂山 古墳群의 성격과 발해 거국지다.」의 마테르 하여 「史實과 前提」라 주제로 재정리하여 작성하였다.

조하면서 말갈적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¹⁾ 이러한 태도는 그 후 북한 학계의 典範이 되어 버렸고, 1980년대에 들어서 더욱 확고하게 굳어져 버렸다.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咸鏡道 지방의 발해 유적은, 그 위치나 문화 전통으로 볼 때에 당연히 말갈적 요소보다는 고구려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 나타나는 문화 성격을 발해 전체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말갈적 요소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南韓에서도 묵시적으로 고구려 요소를 중시하면서, 말갈 요소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발해 5京制의 기원과 관련하여서도 그러한 경향성이 엿보인다. 張國鍾은 발해 5경이 고구려 5부제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면서, 고구려에는 5部制가 변화되어 성립된 5京制도 존재하였다고 까지 주장하였다.⁽²⁾ 그러나 고구려 중·후기의 5部가 수도 및 주요 도시 내부에 설치된 행정구역이었다면, 이것은 지방 거점에 설정된 발해 5경과는 개념적으로 전혀 다르다. 또 전체 영토를 5부로 분할하여 통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지방의 일부 거점도시를 5경으로 삼은 발해의 통치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고구려가 국내성에 도읍하고 있었을 때에 이미 卒本城, 丸都城, 平壤城, 南平壤城, 北平壤城 등의 副首都들이 시간적 순서를 두고 형성되었고,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뒤에는 楸本城, 國內城, 南平壤城, 北平壤城(환도성)과 함께 5경을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³⁾ 그러나 이것은 발해 5경에 맞추기 위해서 역지로 설정한 것일 뿐이지, 고구려 당시에 5경제가 실재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두 번째 태도로서, 중국의 魏存成이나 劉曉東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지만,⁽⁴⁾ 실제로는 대부분의 중국 연구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발해를 말갈족이 세운 국가임을 전제로 삼고서 연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1) 주영현,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1, 147-171면

(2) 張國鍾 著·李成出 譯, 『渤海の領域と五京制』 『高句麗·渤海と古代日本』 在日本朝鮮社會科學者協會 歷史部會 編, 雄山閣, 1993, 160-161면

장국중, 『발해사연구』 2, 사회과학출판사, 1988, 72-74면

(3) 장국중 著·이성출 譯, 앞논문 p.161 및 장국중, 앞책, 73면

(4) 魏存成, 『高句麗·渤海墓葬之比較』 『古民俗研究』 1990-1

劉曉東, 『渤海墓葬的類型與演變』 『北方文物』 1996-2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러한 태도는 러시아 학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의 예. 베. 샤프쿠노프(E.V. Shavkunov)는, 다수를 차지한 여러 말갈 부족들과 일부 고구려인, 그리고 소수의 거란인, 위구르인, 돌궐인, 고아시아인으로 구성된 나라로 발해국을 설명하였다.⁽⁵⁾ 그러면서 말갈족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고구려인들은 단지 발해 남부의 고구려 옛 땅과 발해 중심지에 살면서 문화와 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종교, 건축술, 한자 습득 등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여기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러시아에서의 발해사 연구가 연해주 일대의 고고학적 자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곳은 고구려 영역 밖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 요소보다는 말갈적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발해 문화를 객관화시켜 연구하고자 한다면 상기의 두 가지 태도 모두가 그 출발점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른 측면을 '무시'하고 일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아울러, 다른 측면을 '누락'시킴으로써 논의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것도 분명히 역사의 왜곡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1963-64년에 발굴한 六頂山의 古墳들에 대한 보고서가 근래에 중국에서 간행되었는데,⁽⁶⁾ 북한에서 1966년에 간행한 보고서⁽⁷⁾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북한의 보고서에 M205, M211, M212 및 4기의 土壙墓인 M208, M209, M210, M214호를 누락시켰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고의든 아니든간에 토광묘를 누락시킴으로써, 육정산 고분군에는 석실묘, 석곽묘, 석관묘와 같은 石墓들만 발굴된 것처럼 여기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고구려 요소만 강조하는 연구의 왜곡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지금까지 잘못된 전제가 객관적 연구를 방해한 사례를 몇 가지 열거해보았

(5) Shavkunov E.V., 『발해국과 연해주의 발해 문화 유적』, Leningrad, 1968, 57면

(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六頂山與渤海鎮 - 唐代渤海國的貴族墓地與都城遺址』 中國田野考古學報告集 考古學專刊 丁種 56號,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7)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중국 동북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1963~1965)』 사회과학 위출판사, 1966

다. 발해를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파악하지 않고 고구려나 말갈과 일체화시킴으로써 그러한 왜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발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해, 고구려, 말갈을 각기 독립시켜 3자를 상호 비교하여야만 할 것이다. 발해 고분 연구에서도 역시 그러한 태도가 요구된다.

2. 石墓와 土壙墓의 전통

우선, 靺鞨을 渤海와 처음부터 일체화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오류를 살펴보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발해 涑州 지역의 고분 변화에 대한 해석이다.

발해 건국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말갈족어 粟末靺鞨이다. 속말말갈이란 명칭은 粟末水에서 유래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록이 눈에 뜨인다.

又郢銅涑三州，爲獨奏州。涑州以其近涑沫江，蓋所謂粟末水也。（『新唐書』 권219, 渤海傳）

발해의 3개 獨奏州(直隸州) 가운데 하나인 涑州가 粟末水 부근에 있었다고 하므로, 속주는 속말말갈이 거주하던 곳에 설치된 행정구역임이 틀림없다. 중앙에서 직접 관장하는 행정구역이 왜 이곳에 설치되었는지 기록이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다. 이곳이 契丹을 방어하던 요충지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扶餘府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⁸⁾ 이보다는 속말말갈 자체의 중요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발해 건국 과정에 고구려인들과 함께 활약하며 건국세력의 한 축을 이루었던 집단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涑州의 소재지로 지적되어 온 곳이 吉林市 일대나 그 북쪽에 있는 烏拉街 일대였다.⁽⁹⁾ 그런데, 최근에 董學增은 고고 자료를 바탕으로 吉林市 東團山 아래의 平地城인 南城子 古城을 涑州의 소재지로 비정하였다.⁽¹⁰⁾ 발해

(8) 宋基豪, 『渤海政治史研究』—潮閣, 1995, 226면

(9) 曹廷杰, 松井等, 和田清, 鳥山喜一, 王承禮, 魏國忠은 烏拉街說을 주창한 반면에, 孫進己와 鄭英德은 吉林市說을 주창하였다. 하지만, 金毓黻은 이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만 제기하였다.

上京城에서 출토된 鷓鴣과 유사한 것이 이 성에서 출토된 적이 있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1km쯤 떨어진 帽兒山에 발해 고분군이 자리잡고 있는 정황도 고려되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곳이 발해 涑州의 治所로 유력하다.

근래에는 발해 시기 및 그 이전에 粟末靺鞨이 남긴 고분들이 길림시 및 오랴가 일대, 그리고 榆樹에서 발견됨으로써 이 일대가 속말말갈의 중심지였음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현재 속말말갈 또는 속주와 관련된 고분군으로서 吉林市 帽兒山 고분군, 永吉 楊屯 大海猛 상층(제3기) 고분군, 永吉 查里巴 고분군, 榆樹 老河深 上層 고분군이 있다.

帽兒山 고분군에는 여러 기의 石墓(積石墓)가 발견되었는데, 金簪, 金圈, 도금한 半球形 장식물, 하트형 金葉 장식물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涑州 소속의 官人들이 묻힌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¹¹⁾ 그러나 1980년에 1기만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 편모는 아직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반면에 현지의 속말말갈인들이 묻힌 곳으로 지목되는 곳이 大海猛 상층(제3층) 고분군, 查里巴 고분군, 老河深 상층 고분군이다. 이곳에서는 상당수의 고분들이 발굴되어 전체적인 윤곽이 파악되어 있으니,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속말말갈 무덤 통계표

항목 \ 유적	大海猛 上層	查里巴	老河深 上層
土塚墓	69/70 (99%)	43/47 (91%)	30/37 (81%)
木質 棺槨 확인수	7/40 (18%)	38/47 (81%)	6/37 (16%)
火葬	2/49 (4%)	33/47 (70%)	5/37 (14%)
2次葬	25/70 (36%)	15/47 (32%)	28/37 (76%)
多人葬(3인 이상)	7/40 (18%)	9/47 (19%)	1/37 (3%)
筒形罐(/陶器 總數)	111/167 (66%)	23/51 (45%)	33/37 (89%)
鼓腹罐(/陶器 總數)	18/167 (11%)	16/51 (31%)	2/37 (5%)
鈔板1(帶鈔型)	222	21	0
鈔板2(牌飾型)	56	56	0

(10) 董學增, 「吉林東團山原始, 漢, 高句麗, 渤海諸文化遺存調查簡報」 『博物館研究』 1382-1, 91면

(11) 吉林省文物志編委會 『吉林市郊區文物志』 1983, 77-78면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속말말갈 무덤에서 土壙墓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대해맹 상층에서는 1기의 石壙墓를 제외한 69기 모두가 土壙墓이고⁽¹²⁾ 사리파에서는 4기의 石壙墓를 제외한 43기가 토광묘이고, 노하심 상층에서는 7기의 石棺墓를 제외한 30기가 토광묘이다. 따라서 石墓의 숫자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土壙墓가 주축을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여러 기의 石墓가 조사된 帽兒山 고분군과 구별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중국학계에서는 속말말갈족이 발해를 세웠다는 전제 아래, 길림시 일대의 속말말갈 고분군에서 돈화시의 육정산 고분군으로 변화해간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리고 말갈족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점차 高句麗 墓制를 채택해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¹³⁾ 이에 따라 말갈인들이 토광묘를 造營하다가 점차 석묘를 받아들여 六頂山 古墳群 단계에 이르면 마침내 석묘가 주류를 이루게 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토광묘에서 석묘로 이행해 나아갔던 과정을 이런 식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으며, 두 지역의 고분들을 하나의 발전 연속 선상에 놓을 수도 없다.

속말말갈 고분들에 보이는 石墓는 말갈인들이 고구려 묘제를 채택한 결과가 아니라, 발해가 건국된 뒤에 발해 墓制에서 영향을 받아 조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해맹 상층 M17(1979년 발굴)과 查里巴 M27에서 출토된 開元通寶는 공통적으로 뒷면에 月紋이 있는데, 이 문양은 당나라 중기에 유행 하던 것이다. 또 대해맹 상층 M2에서 출토된 山자형 머리를 한 銅釵(비녀)는 東清 고분군, 虹鱒魚場 고분군, 龍海 고분군 등의 발해 고분군에서 특징적으로 출토되는 것이다. 따라서 길림시 일대의 속말말갈 고분들은 발해 건국 이후까지 내려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발해 건국 이후에 조성된 고분들 가운데 석묘들이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발해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전파 과정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있으니, 涑州의 관료들이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帽兒山 고분군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石墓(積石墓)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이 일대의 속말말갈 고분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파견되었거나 또는 중앙 세력과 밀

(12) 1981년의 발굴은 아직 정식 보고가 되지 않아서 제외한다.

(13) 劉曉東, 앞논문, 35면

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발해 관료들은 갈림시 일대에서도 石墓를 조영하였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들의 통치를 받던 그 주변의 속말말갈족은 발해 건국 이후에도 대부분 고유한 토광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고, 일부에서 이러한 발해 무덤 양식을 받아들여 석묘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결국, 吉林市 일대의 粟末靺鞨族이 土壙墓를 조영하다가 고구려 영향을 받아 石墓를 채택한 뒤에, 이들이 발해를 건국하여 六頂山 고분군과 같은 石墓 중심의 고분군을 조영해간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것은 속말말갈족이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하여 말갈과 발해를 일치화시킴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필연적인 오류인 것이다.

발해를 건국한 고구려계의 건국집단이 石墓를 조영하였고, 이러한 인물들이 涑州에 파견되어 帽兒山 고분군과 같은 석묘 중심의 무덤을 만들어감에 따라, 土壙墓 전통을 지닌 현지의 속말말갈족들도 이로부터 영향을 받아 일부 石墓 양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인 것이다.

3. 六頂山 古墳群의 성격

중국 학자들은 六頂山 고분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石室墓는 제쳐두고 소수를 이루는 土壙墓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劉振華의 글에서처럼 육정산에서 출토된 여러 부장품 가운데 유독 筒形罐만을 고찰 대상으로 하여 대씨 왕실이 말갈계 인물이었다고 주장하는 등,⁽¹⁴⁾ 전체의 일면적 요소만을 강조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고구려 석실분이 地上式, 半地下式인 데에 비하여 발해 석실분이 地下式이라는 점을 들어 양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¹⁵⁾ 발해 고분이 지하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도중에 당나라 고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초기 석실분들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지상식이거나 반지하식이라는 점⁽¹⁶⁾에서 논지에 오류가 있다.

(14) 劉振華, 「渤海大氏王室族屬新證—從考古材料出發的考察」, 『社會科學戰線』 1981-3

(15) 魏存成, 「渤海王室貴族墓葬」, 『中國考古學會第三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84, 261-262면

魏存成, 「第二松花江中游地區的靺鞨, 渤海墓葬」, 『北方文物』 1998-1, 47면

(16) 박운무, 「발해석실봉토무덤에 대한 고찰」, 『발해사연구』 2, 연변대학 발해사연구

사실 옥정산 고분군에서 발견되는 石墓들은 高句麗的인 樣相을 많이 띠고 있다. 특히 貞惠公主墓는 천정 구조나 석실 축조 방식 등에서 고구려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학자들처럼 고구려 고분과의 비교만 시도하고, 말갈 무덤이 어떠한 형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연구 태도⁽¹⁷⁾도 또 하나의 선입견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六項山 古墳群은 1949년에 처음으로 조사되기 시작하여 1964년까지 도합 32기가 발굴되었다. 1949년부터 1959년까지 조사된 12기는 3편의 글에 보고되어 있으나,⁽¹⁸⁾ 내용이 너무 소략하여 고분 구조나 부장품 등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표 2). 더구나 이 때에 발굴된 고분들은 대부분 옥정산 고분군의 핵심부인 제1구역(第1墓區)의 中部와 下部에 위치하고 있어서, 발해 最上層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욱 크다. 한편 중국과 북한 연구자들로 구성된 '조중 공동 고고학 발굴대'가 1963년에 試掘한 1기와 1964년에 발굴한 19기에 대한 발굴 보고서는 1966년과 1997년에 각기 북한과 중국에서 간행되어 자세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표 3).

도합 32기의 고분은 축조 양식에서 볼 때에 28기의 石墓와 4기의 土墓로 대별된다. 石墓는 다시 石室墓, 石槨墓, 石棺墓로 세분할 수 있으나, 보고자마다 분류를 달리 하고 있어서 혼란스럽다. 따라서 이들 재분류하면, 일차적으로 羨道の 有無에 따라 石室墓와 石槨·石棺墓로 대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M1, M2, M4, M5, M101, M105, M201, M202 등이 石室墓에 해당하며, 특히 羨道 앞에 墓道가 달린 M2와 M4는 大型 石室墓로 분류할 수 있다. 羨道가 없는 것이 분명한 M3, M12, M103, M104, M203은 石槨·石棺墓로 분류할 수

실 편, 연변대학출판사, 1991, 47면

鄭永振, 「최근년간 중국동북지역에서의 발해유적 조사 발굴과 발해사연구동향」, 『韓國上古史學報』 9, 1992, 188면

金太順, 「渤海墓葬研究中的幾個問題」 『考古』 1997-2, 27면

(17) 주영현, 앞책, 65-79면

송성호, 「발해초기의 성과 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8-1, 34-35면

장철만, 「발해무덤의 고구려적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8-4,

(18) 王承禮, 「敦化六項山渤海古墓群調查簡記」 『吉林省文物工作通訊』 1957

王承禮·曹正榕, 「吉林敦化六項山渤海古墓」 『考古』 1961-6

王承禮, 「敦化六項山渤海墓清理發掘記」 『社會科學叢刊』 1070-2

있지만, 墓室 안에 木棺이 안치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石槨墓와 石棺墓로 다시 세분하기가 어렵다. 단지, 묘실의 상대적인 크기를 기준으로, M3, M12, M203은 石槨墓로, M103, M104는 石棺墓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

4기의 土壙墓 가운데 M209와 M210은 南壁에 石築을 하였으므로 순수 토광묘로 보기는 어렵고, 石墓 전통을 일부 채택한 土石混築墓에 속한다. 이에 비한다면 M208과 M214는 순수 토광묘에 속한다.

따라서, 石墓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이다. 石墓와 土墓의 비율에서 걸림시 일대의 속말말갈 고분들과 정반대 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표 1 참조).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육정산 고분군은 속말말갈의 전통을 계승하지 않았다. 이미 鄭永振도 지적하였듯이,⁽¹⁹⁾ 사실 이러한 石墓 전통과 土壙墓 전통은 고구려제와 말갈제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 발해 영역 가운데 고구려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북한의 咸鏡道 일대에서는 土壙墓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전부 石室墓를 주축으로 한 石墓들만 발견되었다. 이에 반해서 고구려 영역 밖이었던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土壙墓들이다. 시야를 좀더 넓혀 흑룡강에 살았던 黑水靺鞨로 옮겨가보면, 土壙墓 일색으로 변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滿洲 지역의 발해 영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토광묘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속말말갈, 흑수말갈 등이 거주하였던 松花江 연안에 국한되고,⁽²⁰⁾ 그밖에 길림성, 흑룡강성 지역에는 극소수의 토광묘를 제외하고는 모두 石墓 전통이다. 따라서 발해 중심부에는 石墓가 유행하였고, 그 외곽지대에 土壙墓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외곽지대이면서 함경도 지역에서 石墓 一色인 점은, 석묘의 전통이 고구려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에서 유행하던 석묘의 전통이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발해에 이어지면서 그 분포 범위가 과거 고구려 영역 밖으로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육정산 고분군은 주로 고구려의 석묘 전통을 이은 것

(19) 鄭永振, 「高句麗·渤海·靺鞨 墓葬形制 比較研究」 『百濟研究』 22, 1991

(20) 현재 발해 전국 이전의 靺鞨 고분에 속하는 石墓의 예로서 虹鱗魚場 고분군이 지목되고 있지만(金太順, 앞논문 27면), 아직 신빙할 만한 편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그녀의 견해를 따른다 하더라도, 上京城 일대는 현무암 지대로서 흙보다는 돌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棺槨의 사용, 火葬, 2차장과 多人葬, 獸骨 副葬과 같은 매장 습속이나 筒形罐과 같은 부장품에서는 異質的인 요소들이 보인다. 우선, 육정산 고분군의 32기 가운데 절반 정도에서 木棺을 사용하였거나 木棺과 木槨을 함께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大海猛 上層과 老河深에서 이보다 낮은 비율로 목관이 사용된 반면에, 查里巴에서는 이보다 높은 비율로 독특한 형태의 변형 목곽이 사용되었다. 고구려에서도 積石墓 단계에서 이미 木棺과 木槨을 채용하였다. 다만, 封土石室墓 단계의 葬具에 대한 자료가 워낙 없어서, 이에 대한 언급은 따로 찾아볼 수 없지만 고구려 말기까지 木質 棺槨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관곽의 사용만 가지고 어느 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다.

육정산 고분군에 보이는 火葬의 현상도 빈도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3개 속말 말갈 고분군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에서도 화장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洞溝 고분군에서 1천 여기의 積石墓를 조사한 결과, 640여 기에서 불에 탄 흔적을 발견하였고 나머지 300여 기에서만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²¹⁾ 이렇게 화장이 고구려 積石墓 단계에서 이미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봉토석실묘 단계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보고가 없으나, 이 단계에 와서 화장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그 연원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발해 무덤에서 보이는 화장 현상은 고구려보다는 말갈에 잔존해 있는 습속이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多人葬과 2次葬 문제에서도 동일하다. 대체로 다인장 현상은 2차장과 동반된다. 육정산 고분군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속말말갈 고분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고구려 고분에서는 인골 출토 예가 아주 적어서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지만, 2차장의 가능성을 보이는 고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²²⁾ 또 고구려가 三年葬을 치렀으므로,⁽²³⁾ 武寧王의 경우처럼 임시로 매장하였다가 다시 本葬을 치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장을 많이 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多室墓의 경우에는 한

(21) 孫仁杰, 「高句麗積石墓葬具研究」,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1993, 120면

(22) 魏存成, 『高句麗考古』 吉林大學出版社, 1994, 88면

(23) 『隋書』 권81, 高麗傳 : 「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居父母及夫之喪, 服皆三年, 死弟三月。」

무덤에 여러 사람을 묻는 多人葬을 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습속도 과연 어느쪽 전통을 반영하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1차장과 2차장이 혼재되어 있는 현상 등은 아무래도 말갈적인 모습을 더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다음으로, 육정산의 제1구역에서만 나타난 獸骨 출토 현상을 살펴보겠다. 이 현상은 고구려 고분에서 보고된 예가 없다. 다만, 查里巴 M15에서 馬頭가 묻힌 예가 있고, 哈爾濱 黃家崴子 安車骨部 말갈 무덤과 黑龍江 연안의 黑水 鞞高분들에서도 말과 돼지 뼈가 출토된 예가 있으며,⁽²⁴⁾ 同仁 문화 유적에서도 말 뼈가 출토되었으므로,⁽²⁵⁾ 이러한 전통은 역시 말갈족의 습속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주인공이 평소에 타던 말을 희생물로 바쳤다는 문헌 기록과도 일치한다.⁽²⁶⁾ 그러나 상기 3개 속말말갈 고분군에서는 동물 뼈가 묻힌 예가 희소하므로, 안거골부나 흑수말갈과 같은 주변의 말갈족이나, 아니면 敦化 주변의 말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부장품이다. 부장품에는 陶器와 金屬製品 및 玉石 제품들이 있다. 이러한 유물들을 가지고 자기 그 유래와 성격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발해 건국집단의 구성이 다양하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유물에서도 그러한 다양성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수를 이루는 유물에 연연하여서는 건국집단의 주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부장품 가운데 특징적이고 주류를 이루는 요소를 추출하여 이들의 성격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로서 筒形罐(長腹罐)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정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도기들은 높은 온도에서 구워 단단하고 모래가 아주 적게 섞인 것으로 회색을 띠는 유형,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구워 덜 단단하고 모래가 많이 섞인 것으로 紅褐色, 灰褐色, 黃褐色을 띠는 유형이 있다.

(24) K.A. 질레즈냐코프(Железняков К.А.) 著, 孫秀仁 譯, 「阿什河下游河灣地帶考古調查收穫」 『黑龍江文物叢刊』 1983-2, 108면

크루샤노프 아.이.(Крушанов А.И.) 책임편집, 成于衆 譯, 王德厚·候玉成 校, 『蘇聯極東史—從遠古到17世紀』 哈爾濱出版社, 1993, 167면

(25) 楊虎·譚英杰·張秦湘, 「黑龍江古代文化初論」 『中國考古學會第一次年會論文集(1979)』 文物出版社, 1980, 88면

(26) 『舊唐書』 卷199하, 靺鞨傳 : 「殺所乘馬, 於屍前設祭。」

통형관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灰褐色 또는 紅褐色이고 입이 비교적 넓으며, 口緣部 아래에 突帶(附加堆紋)가 달려져 있다. 몸통은 길쭉하고 배는 약간 나왔으며 平底이다. 또 어깨 부분에 문양을 달린 예도 하나가 있다.

고구려 말기가 되면 陶器가 거의 泥質로 바뀌는 정황⁽²⁷⁾과 함께, 漢江 유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도기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泥質胎土로 되어 있는 사실⁽²⁸⁾을 고려해볼 때, 육정산 출토 筒形罐이 고구려와 연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지적하다시피, 이들 통형관은 역시 말갈 도기에서 연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劉振華는 이를 근거로 말해 전국 집단이 말갈족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상으로 고분 양식, 매장 방식, 부장품의 세 가지 큰 범주를 통하여 육정산 고분군의 성격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고분 양식면에서는 高句麗 문화를 강하게 풍기고 있음에 틀림없다. 반면에, 매장 습속에서는 관곽의 사용, 화장, 2차장과 다인장의 측면에서 고구려와 속말말갈 어느 쪽 전통이 강하게 반영된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구려보다는 속말말갈 전통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獸骨 공반 현상은 말갈 전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속말말갈이 아닌 다른 말갈족 전통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부장품면에서도 통형관은 말갈 전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나, 튼날모양의 突帶가 달린 도기와 瓦罐2형이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속말말갈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인다.

이를 육정산 고분군의 두 구역으로 나누어 다시 고찰해보면, 비교적 대형의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제1구역 중·하부에서는 고분 양식으로 볼 때에 고구려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있지만, 짐승뼈가 이곳에서만 출토된 점은 역시 말갈적인 전통이 함께 스며 있음을 보여준다. 제1구역 상부와 제2구역에는 말갈적 전통을 지닌 土壙墓가 포함되어 있고, 火葬의 현상이나 筒形罐의 출토도 이곳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말갈적인 요소가 앞의 구역보다 더 강하게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육정산 고분군은 고구려 요소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27) 耿鐵華·林至德, 「集安高句麗陶器的初步研究」 『文物』 1984-1, 62면

(28) 최종택, 「漢江流域 高句麗土器 研究」 『韓國考古學報』 33, 1995, 70면

것은 발해 건국집단이 단일한 종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된다. 발해의 건국집단은 營州를 벗어날 때부터 이미 高句麗人과 靺鞨人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이 遼東으로 피신해 왔을 때에도 현지의 고구려인들을 합류시켰다. 그리고 東牟山에 건국한 뒤로는 현지의 토착 말갈인, 이곳으로 흘러 들어간 고구려 유민들을 다시 흡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육정산 고분군은 東牟山으로 이입해 왔던 세력이 지니고 있었던 고구려적 요소 및 말갈적 요소와 함께, 이들이 營州 체류시에 체득한 唐 문화적 요소도 들어 있을 것이고, 동토산 주변에 흩어져 살았던 말갈족의 문화 요소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상정된다. 또 발해 건국 직후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육정산에 고분이 조성되었던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발해인들의 독창적인 문화 요소도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육정산 고분군에 포함된 다양한 문화 요소를 무시하고 고구려 전통만 강조하게 되면, 발해 건국의 역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맺 음 말

잘못된 전제로 인하여 의도적이건 무의식적이건간에 역사적 사실을 오해하거나 곡해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위에 든 두 가지 사례처럼 발해 고분 연구에서도 역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발해는 속말말갈족의 국가라는 공식 아래서는 吉林市 일대의 고분 변화 과정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중국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길림시 일대의 粟末靺鞨 土壙墓 → 길림시 일대의 粟末靺鞨 石墓 → 六頂山 고분군의 변화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니라, 六頂山 고분군의 石墓가 길림시 일대의 속말말갈족에게 영향을 주면서 토광묘에서 석묘로 변화되어 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濛州에 파견된 관료들이 묻힌 帽兒山 고분군은 이러한 과정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연결 고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육정산의 고분들을 고구려 문화와만 연계시키려 한다면, 그 또한 발해 건국집단에 대해서 잘못된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육정산 고

분군에는 石墓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古墳 構造나 內外部 施設의 세부적인 면에서 고구려 문화 요소를 강하게 띠고 있다. 하지만 棺槨 사용, 火葬이나 多人葬, 2차장 및 獸骨 공반과 관련된 매장 습속, 筒形罐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陶器 副葬에서 말갈적인 요소도 강하게 띠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고구려의 고분 양식에 말갈적 매장 습속이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大型 石室墳들이 자리잡고 있는 제1구역 중·하부에는 일부에서 말갈적 요소도 보이지만, 고구려 요소가 더 강한 양상을 띤다. 그리고 제1구역 상부와 제2구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말갈 요소가 더 두드러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것은 발해 건국집단에서 최상층부로 올라갈수록 高句麗人의 비중이 높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靺鞨人의 비중이 높았음을 반영한다.

결국, 발해사를 연구하는 데에서 기왕의 어떠한 전제에도 얽매이지 않고 발해, 고구려, 말갈의 3요소를 서로 객관화시켜 상호 비교하여야만 비로소 역사적 실체에 더욱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표 2〉 六頂山 古墳群 자료 1

編號	位置	樣式	羨道 有無	葬具	葬法	人數			副葬品				
						1차장	2차장	불명	陶器	金屬類	瓦埴類	기타	
M1	1 墓區 중부	石室墓	有					2					
M2 (貞 惠公主 墓)	1 墓區 중부	石室墓 (고임천 정)	羨道 (南 壁中央) 墓道	木棺					陶片1	廣頭釘, 鍍金圓帶銅釘 4. 鐵釘	板瓦(封 土上) 素面磚	貞惠公主 墓誌1, 石 壁 片2	
M3	1 墓區 중부	石室墓	無					4					
M4	1 墓區 중부	石室墓	羨道 (南壁 中央) 墓道								板瓦(墓 室內) 素面磚	玉璽1	
M5	1 墓區 하부	石室墓 (板石 天井)	有 (南壁 中央)						陶瓶1, 陶甗	金環1, 鐵環, 鍍金銅飾 1, 鍍金帶環1		馬骨 다수	
M6 (珍 陵?)	1 墓區 중부	石室墓							陶片		花紋磚	壁畫片, 石腳耳	
M7	1 墓區 중부	石室墓		木棺 ?						鐵釘	素面磚		
M8	1 墓區 중부	石室墓											
M9	1 墓區 중부	石室墓							長頸 瓶1	香爐1(早근 출토), 金環1, 裝飾品3, 鍍金 裝飾品, 鐵環2			
M10	1 墓區 하부	石室墓											
M11	1 墓區 하부	石室墓						2				獸骨	
M12	1 墓區 상부	石棺墓	無	無									

* 이 고분들에 대해서는 '墓葬登記表'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참 고 문 헌〉

1. 王承禮, 「敦化六頂山渤海古墓群調查簡記」, 『吉林省文物工作通訊』 1957
2. 王承禮·曹正榕, 「吉林敦化六頂山渤海古墓」, 『考古』 1961-6
3. 王承禮, 「敦化六頂山渤海墓清理發掘記」, 『社會科學戰線』 1979-3

〈표 3〉 六頂山 古墳群 자료 2

編號	位置	樣式	羨道 有無	葬具	葬法	人數			副葬品			
						1차장	2차장	불명	陶器	金屬類	기와류	기타
M101	1墓區 상부	石室墓	有 (南壁, 偏西)	木槨2 ?		2 (北枕)	3(小兒)		陶片47	銅帶35, 銅帶扣1, 銅 耳環1, 鐵帶銜1, 棺釘 29		
M102	1墓區 상부	石室墓	불명	木槨1		1 (北枕)	9		陶珠1	銅帶37, 銅帶扣1, 鐵 帶銜6, 鐵帶尾1, 棺釘		
M103	1墓區 상부	石室墓	無									
M104	1墓區 상부	石室墓	無						陶斂口罐1, 直 腹罐1, 陶片38			
M105	1墓區 상부	石室墓 (板石 天井)	有 (南壁, 偏西)	木槨		2 (南枕)	2			銅指環1, 銅耳環1, 鐵 棺釘17		
M201	2墓區 동부	石室墓	有 (南壁, 偏西)		火葬	1 (南枕)			陶瓶1, 陶罐1, 陶盤1, 陶片 50여	銀鍍2, 銅片1	板瓦1(墓室內)	
M202	2墓區 중부	石室墓	有 (南壁, ?)	木槨	火葬	1 (北枕)			陶長腹罐1			料珠2
M203	2墓區 중부	石室墓	無			2 (北枕)			陶片 약간	銅鍍2, 鍍金銅耳環2		
M204	2墓區 중부	石室墓	불명		火葬	1			陶長腹罐1	銅鍍1, 銅帶銜1, 銅鈿 尾1, 銅鍍1, 銀指環2, 鐵鍍1		琉璃珠 2 料珠1
M205	2墓區 중부	石室墓	有 (南壁, 中央)	木槨 木槨	火葬	2(北枕): 1(幼兒)			陶長腹罐3, 陶 瓶1, 雙耳盆1	銅指環2, 棺釘		料珠3
M206	2墓區 중부	石室墓	有 (南壁, 中央)	木槨2	火葬	2 (北枕)	3		陶長腹罐1, 陶 圓腹罐1	銅鍍3, 銅耳環1, 銅帶 扣1, 銅帶銜1, 銅鈴11, 鐵帶銜8, 鐵鍍1, 鐵棺 釘13		琉璃 珠 料珠5
M207	2墓區 중부	石室墓	有 (南壁, 中央)	木槨	火葬	1			陶甕1, 陶斂口 罐1, 陶片 약 간	銅鍍2, 鍍衣扣(단 추)1, 殘鐵環1		
M208	2墓區 동부	土槨墓	無		火葬				陶片 10여	銅鍍	板瓦3, 瓦當1(墓室內)	

(뒤로 계속)

M209	2墓區 서부	土槨墓 (南壁 石築)	有 (南壁 中央)	木槨 木棺2	火葬	2(北 枕)	6	陶圓腹罐1, 陶片	銅帶鈔2, 鐵小刀1, 鐵棺釘20	筒瓦2, 板 瓦18(封土 上 및 墓室內)	
M210	2墓區 서부	土槨墓 (南壁 石築)	無	木棺	火葬	2(北 枕)	1	陶片	銅指環1, 銅帶鈔1, 鐵帶鈔1	瓦片(封土 上)	馬鞍紐1
M211	3墓區 중부	石室墓	有 (南壁 中央)	木槨 木棺	火葬	3	3	陶長腹罐1	銅帶鈔6, 銅指環1, 鐵帶鈔1, 金指環1, 銀耳環1, 鐵棺釘2, 殘鐵器		瑪瑙珠4, 玉珠1
M212	2墓區 중부	石室墓	불명	木槨 또는 木棺	火葬						
M213	2墓區 중부	石室墓	有 (南壁 中央)	木槨		2		陶片 약간	銀耳環1, 鐵棺釘20		
M214	2墓區 동부	土槨墓	無	木槨 木棺	火葬	회소		陶片 약간	鐵棺釘7		
M215	2墓區 중부	石室墓 (板石 天井)	有 (南壁 中央)	木棺			일부 2차장 ⁸	陶長腹罐1, 陶片 약간	銅帶鈔2, 銅鈿尾2, 銅鈿3, 鐵 鈕1, 殘鐵器1		瑪瑙珠2, 瑪瑙管1

〈참 고 문 헌〉

1.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중국 동북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1963~1965)』 사
회과학원출판사, 1966
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六頂山與渤海鎮 -唐代渤海國的貴族墓地與
都城遺址-』 中國田野考古學報告集 考古學專刊 丁種 56號, 中國大百科全書
出版社, 1997